

알짜배기 폐기물처리업체의 경영위기 원인은 따로 있었다.

**경찰은 방만한 경영 전반을 철저히 수사하고,
노동자에게 경영위기 책임을 전가한 경영진을 엄벌에 처하라!**

최대 매출 달성한 회사가 경영위기라더니 이유는 따로 있었다.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이엔티는 지난해 사상 최대 57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수년 동안 일감은 계속 늘었고, 공장은 항상 풀가동이었다. 회사는 지난 2월 난데없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고정비용이 많으며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막무가내식 정리해고에 속수무책으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영위기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벤처 펀드, 코인ETF 등 위험한 투자로 인한 손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

배성로 회장 일가가 족벌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처이엔티와 운강건설 그리고 관련 계열사들은 유난히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고위험 투자가 많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 벤처투자사 엑스퀘어드의 공동대표를 맡아 운영해오던 배회장의 아들 배민수 대표가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2021년 이후 배회장 일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들에서 해외주식 및 비트코인ETF등 고위험 금융투자, 그리고 이해상충이 의심되는 엑스퀘어드 펀드 상품 등에 들어간 금액은 총 550억원에 이르고, 2025년말 기준 추정되는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손실에 대한 경영진의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

인력 운영도 제멋대로였다.

올해초 네이처이엔티, 영남일보, 운강건설의 인원이 모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운강건설의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및 운용을 진행했다. 배민수 대표는 경북지노위 심문과정에서 운강건설 명의의 채굴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인정했다. 채굴기 설치가 비상경영체제 선포 후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같은 일은 네이처이엔티와 영남일보에 피해를 입히고, 운강건설이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가 밝혀져야 할 내용이다.

고정비용 연간 6억원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 8명이 해고됐다.

경북지노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서에서 해고를 통한 6억원 남짓한 임금액 감축이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성로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이 550억원에 이르는 고위험 투자를 진행하고,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은행 대출 심사를 위해 고정비용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노동자 8명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경찰은 방만한 경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위법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북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네이처이엔티 경영진들의 책임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서 머물러선 안된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수십년간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경영 위기로 몰고, 오히려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해고함으로서 해고자들과 가족들의 생계까지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금속노조는 오늘 네이처이엔티 경영진에 대한 고발과 함께 네이처이엔티의 방만한 경영 전반에 대한 경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경찰에 요구한다.

하나, 네이처이엔티의 경영상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하나, 네이처이엔티 자본의 고위험 투자 및 이해상충 투자에 따른 배임혐의를 수사하라!

하나, 방만 경영, 위법 경영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6년 9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